

◇... 칼슘이 많은 식품을 다량 섭취한다고 해서 전부...◇
 ◇...가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 종류, 타 식품과...◇
 ◇...의 관계, 소화기의 상태와 체질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예로서 과물은 친진산과 칼슘을 화합하여 난...◇
 ◇...용성(難溶性)의 염을 만들게 되고, 시금치는 육살...◇
 ◇...산 때문에 칼슘의 흡수가 방해된다.

<編輯者註>

칼슘의 흡수

야채, 해조류, 우유, 골분, 어분 등이 칼슘을 섭취하는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하루의 필요 모양으로 흡수하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음식물의 칼슘이나 편되고 있는 칼슘은 일단 위 산에 용해되어 영화칼슘이 된다. 비타민 D가 이것을 운반하면 비타민 K가 이온화시킨다. 그 후 이지장에서부터 소장의 상부변에 이르는 동안에 흡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타민 D, 비타민 K, 칼슘 등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특히 피부에는 예로부터 고스레인이 자외선을 받아 비타민 D로 전환되므로 하루에 30분 정도의 일광욕이 칼슘의 체내 흡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 일광욕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타민 D나 비타민 K의 결핍으로 일광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칼슘을 이온화시키며 이온화되어 있는 칼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체내에서 이렇듯 대단한 기능을 발휘하는 칼슘은 이온화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식품에서 흡수되는 칼슘은 결합형인 것으로서 체내에서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95%~85%는 배설되는 것

화되는 반면에 세균번식이 왕성해지므로 모든 질병에 대한 방어능력이 약화된다.

이런 사람에게 발생될 것을 미리 예방하려면 혈액의 오락, 즉 혈액이 산성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혈액의 4%에 해당하는 이온칼슘이 것이다. 이 칼슘이 온은 혈액을 약alkali성으로 유지시키는 일을 할뿐만 아니라

든다음에 혈액에 공급하게 된다. 빠른 치아의 세부분은 모두 함께 칼슘을 대단히 필요로 하는 곳이지만 혈액이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혈액의 이온칼슘이 저하되면 부갑상선 흙은 자극을 받아 분비되어 혈중 이온칼슘 농도의 상승을 기하하게 된다.

이렇게 혈액 속의 이온칼슘과 뼈 속의 결합형 칼슘이 이른바 칼슘대사 흙이라 일컫는 부갑상선 흙, 비타민 D, 비타민 K 등에 의하여 서로 늘고 체 된다는 사실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의학 분야에서 활용하면서부터 알게 되었다. 그만큼 체내에서의 칼슘대사는 아직도 신비에 가까울 만큼 미지의 분야인 것이다. 지

을 채우게되고 외부 공급이 많을 때는 보통 뼈와 이빨에 보내 더 단단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칼슘의 섭취가 계속해서 부족할 때에는 치아나 연골 부분의 칼슘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혈액으로 옮겨지므로 뼈도 치아도 함께 약해진다. 그 결과로 관절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는데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관절염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때 때문이다. 충진나 풍진, 골절 뼈에 통증이 오는 것 모두 칼슘 공급에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체내 칼슘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안고 있는 사람은 일신부이다.

일신 3개월전에 모체의 칼슘결핍이 있게 되면 태아의 뇌발육에 지장을 주게 되는데 이 심

이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출산은 예전에 모유가 충분치 못하므로 분유나 우유 같은 보조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천혜의 자연식인 모아기에게 공급치 못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이라 모든 것을 개선시킬려면 먼저 체질을 약alkali성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의 PH를 약alkali로 유지시킬 주연인 이온칼슘을 충분히 보급시켜야 한다. 평소에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므로 일신증, 소화불량, 변비, 치질, 기미, 뼈마디가 주시는 것, 관절염, 당뇨, 치아의 허약해짐, 임명, 태아의 발육부진, 골형성부전증, 빙혈증의 태아, 뇌발육부전증, 난산등 일신부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피부와 칼슘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피부와 체질의 PH는 역비례 관계에 있다. 건강한 피부는 언제나 약산성으로서 건강한 체질이 약alkali인 것이다. 즉, 피부는 약간의 지방산을 함유하여 윤기가 나고 외부로부터 병균침입에 대항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체질이 약산성으로 떨어지면, 즉 혈중 이온칼슘 런이 하락되면 체내에 당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고 자연히 에너지원으로서 피부에 있는 지방산이 공급되게 된다. 따라서 피부가 알카리로 변하게 되면 거칠거칠하게 되며 윤기가 사라 진다.

또한 피하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메라닌 색소에 검은색이 생기게 되며, 그것이 피부로 나와 학개되는데 이것을 기미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람은 산혈증의 사람으로서 장기능도 약화되어 소화능력이 떨어지고 장수축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변비가 뒤따르게 된다. 변비가 있게 되면 엄덩이 부분의 정맥의 혈액순환

칼슘이란 무엇인가?

라, 체내에 쌓이는 산성 독들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등 전감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성 독들이라 함은 물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성 노폐물을 일컫는 말인데, 단백질에서는 유산, 인산이, 지방과 당질에서는 약산, 아세트초산, 유산(젖산) 초선포도산등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것을 중화시키는 것으로서 혈액과 체액에 있는 이온칼슘을 따로만 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칼슘을 체질개선의 주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일 이온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에 누적된 젖산이 근육통을 일으킨다든가 정신이 신경 및 순환계에 영향을 끼쳐서 신경통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특히

금까지 밝혀진 지식만으로도 충치에 대한 상식이 뒤바뀔 만한 일이라 하겠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물을 것을 뛰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르네오나 인도네시아에 사는 원주민들은 사탕수수같은 것을 먹고 이를 끝지 않아도 충치가 생기는 것을 별로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카리성 식품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므로 혈액과 몸에 충분한 런의 칼슘을 저장하고 있어서 항균 능력이 저하하여 충치가 예방된다는 것이다.

설탕, 초콜릿, 파자, 라면 등 다양은 식품이나 화학적으로 가공된 식품을 섭취하므로 당연히

각심은 대단해서 소뇌와 혹은 정신박약아의 출생이 있게 된다. 3개월이 지나면 모체로부터 상당히 많은 런의 칼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연히 모체는 칼슘부족 증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폴경화증세로서 콧부병이 생기며 치아는 약해질대로 약해져서 출산 후에는 잇몸이 다 둘뜨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임신중에 팔다리가 시큰시큰해져서 오래 서있을 수밖에 되고 뼈마디가 꽉꽉수시는 일은 칼슘이 상당히 부족해졌다는 증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아의 골격발달의 부진과 수 및 골수의 생신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악성 빙혈증세를 둘에서 난재 출생하게 되는 것이다. 체내

食品의 칼슘吸收率은 5%~10%로 큰效果 기대어려워

酸性血液은 순환장애유발...산성혈액→成人病多發위험

白血球는 弱alkali상태에서 食菌作用 왕성

이다. 즉, 다른 영양소와 달리 수율이 낮은 종류의 영양소이므로 가정주부들은 이점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혈액의 이온칼슘

인체의 13분의 1(성인 5ℓ~7ℓ)은 차지하고 있는 혈액은 23초라는 짧은 동안에 몸 전체를 한바퀴 돌면서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근육에 CO₂ 및 노폐물을 제거시킨다.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요한 기능이 주로 혈액에 전해지거나 되지 않느냐에 따라 전강과 성인병의 예방이 좌우된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혈액의 PH가 7.44~7.36 즉 약alkali성일 때에 이며 이 경우를 정결한 시냇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러나 PH가 7.35 미만으로 떨어지면 체질이 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비록 혈액의 PH 수치가 약 alkali성일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산성혈액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산성혈액은 오염된 폐수처럼 더럽고 끈적끈적 하므로 모세혈관에서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이러므로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원활치 못할뿐만 아니라 노폐물의 제거기능도 약해져 동맥이 경화되거나 심근이 경색되기도 하고 혈당이 높아지며, 근육의 피로가 날로 더해진다. 더구나 산성체질에서는 뼈구의 능력, 즉 식くな착용이 둔

점신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뇌에서 당대사가 많으며 자연히 대뇌피질에 누적된 젖산은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두통 환자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오히려에 목이 뻣뻣해지거나 뒷골이 치는 것은 혈액의 이온칼슘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충된 이온칼슘이 밤사이에도 폐물을 제거해야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깨끗하고 몸이 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런데 혈액내에 4%의 이온칼슘량을 지속하는 것은 전강의 기본으로 이것을 의식하고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을 자세히 관찰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먹는 칼슘이 부족해서 소모되는 이온칼슘량을 보충시키지 못한다면 체내의 자동조절 장치에 의해 혈액의 PH를 약alkali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기능이 발휘되는데, 이것을 칼슘대사라고 부른다.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갑상선 흙으로서 치아나 뼈(특히 연골부분)에서 칼슘을

알카리 체질이어야 할 아이들까지도 산성체질화 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부족되는 혈중이온 칼슘을 보충하기 위하여 칼슘대사에 대해서 치아의 칼슘이 혈액으로 옮겨지게 되며 이 때에 약해진 치아에(즉 연골화된 치아) 병균의 침입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런의 혈액이온 칼슘이 유지되기 만하면 충치는 별로 걱정 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또한 유아의 잔병이 이빨이 돌 아날 때 많이 생기는 것도 칼슘 대사의 영향이며 이 때는 반대로 혈중 이온 칼슘이 잇몸으로 옮겨져서 치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에 혈액의 PH가 칼슘의 부족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배혈구의 식균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라고 한다. 유아의 질병 치료에 이점을 참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뼈나 이빨은 칼슘의 저장소 역할을 해서, 먹는 칼슘이 부족하여 체내 소모량을 공급시키지 못할 때는 부갑상선 흙의 작용으로 뼈나 치아에서

이온칼슘의 부족은 또한 장기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비워가 악화지게 되며 자연히 입덧이 생기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입덧을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칼슘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다. 모체의 이온칼슘의 부족은 혈액의 산성화를 만들므로 임신중에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노폐물이 적절한 시기에 제거되지 못하므로 여러 증후군이라든가 임신증후증까지 유발된다.

칼슘은 분만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아프리카의 토인이나 인디언들은 현대식 병원 없이도 튼튼한 아이를 쑥쑥 잘 낳을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산후조리라는 용어를 알지 못하고 산다. 자연분만이라는 용어가 어느 사이에 옛날의 통용어가 되었으며 출산은 병원에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고, 그것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세의 풍조인 듯하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더구나 자연분만과 모유의 생산량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난산

이 원활치 못하므로 충분부근의 노폐물(독소)을 제대로 제거시키지 못해서 결국 치질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칼슘은 월경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 이온칼슘의 적정선 유지는 배린이 제대로 되게 하고 월경주기를 정상화 시키게 된다. 생리 기간에는 혈중 이온칼슘 농도가 3%로 떨어져서 혈액 응고능력이 저하되므로 출혈이 있게 되고 불필요한 출혈을 채워내 설시킬 수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혈중 이온칼슘의 농도가 4%로 상승되어 혈액 응고능력이 상승되므로 출혈이 멈추게 되고 배린이 있게 되어 생체내의 화학작용 질서가 잡히게 된다. 그러나 체내에 비축된 칼슘도 부족하고 외부로부터의 공급도 부족하게 되면 혈중 이온칼슘 런이 4%가 채워지지 못하게 되며 배린이 어려워지게 되고 따라서 월경주기에 이상이 오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營業種目

• MICRO FILTER 및

空調 FILTER

• 淨水裝置

• 純水裝置

• 濾過裝置

CHEMICAL FEEDER

(消毒裝置)

• POOL場 濾過裝置

• 其他 機器製作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73~1

(풍전상가 3층 가열 306)

전화 265-9380, 266-0855 · 8302

공장 : 경기도 시흥군의왕면 내손리 324-13

전화 1343-3-3552

부산지사 : 부산시 중구 부평동 2가 53

전화 23-2407

대구지사 : 경북 대구시 중구 서문로 1가 25

전화 22-4819

호남지사 : 전주시 태평동 1가 4-10

전화 3-6859

포항지사 : 포항시 축도 1동 35-34

전화 3-2489

湖源商社